

<서평>

## 인류학자의 역사 부수기

Philip Taylor, *The Khmer Lands of Vietnam, Environment, Cosmology and Sovereign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4.

최 병 옥\*

책 제목이 도발적이다. 그런데 이 도발적인 제목에 시비를 거는 베트남 사람을 만난다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은 단어 배열이기도 하다. 부제를 뺀 원제목만 보자면 ‘베트남의 크메르 땅’이다. 저자는 ‘베트남의’라고 소유 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크메르의 땅’이란 표현은 강해 보인다. 더군다나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베트남의 크메르 땅’이 아니라 ‘크메르의 베트남 땅’ 혹은 ‘베트남에 있는 크메르 땅’도 된다.

이 책이 다루는 ‘크메르 땅’의 범주는 베트남을 북부, 중부, 남부로 삼분했을 때의 남부 베트남에 속한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곳을 ‘깎뿌찌어 크롬’ 즉 하부 캄보디아(이하 캄보디아 크롬)라고 부르며 프랑스가 베트남을 떠날 때 캄보디아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을 베트남에 잘못 귀속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는 곳이다. 크메르 루주의 군대가 베트남을 공격하며 회복하겠다고 한 ‘실지’가 바로 이곳이다.

---

\* 인하대 사학과

책의 구성에 대한 소개와 관련해서 제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 ‘땅’은 단수(land)가 아니라 복수(lands)이다. 즉 ‘크메르 땅’이 아니라 ‘크메르 땅들’인 것이다. 저자는 캄보디아 크롬 내 일곱 개의 ‘크메르 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일곱 개 지역을 뒤져내 알아 낸 크메르인의 자연 환경(environment), 우주관(cosmology), 주권(sovereignty)의 문제가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다. 부제에서 나오는 환경이나 우주관은 이중 소유격을 쓴 제목에서의 도발적 긴장감을 완화하지만 마지막의 ‘주권’은 베트남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내가 알기에 저자가 캄보디아 크롬을 캄보디아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객관적으로 캄보디아 크롬의 크메르 공동체를 살피기 위해서 불필요한 선입견을 벗어 버리고자 한 것 같다. 남부 베트남 내의 소수민족으로 크메르인을 파악하는 것이라든지, 캄보디아 크롬에 버려진 동포로 보는 캄보디아의 시각은 하나같이 메콩 델타의 크메르인을 주변인으로 만들 뿐이다.

남부 베트남 전공자로서 확고한 위상을 다져 온 필립 테일러가 새로운 주권을 부여하는 크메르 땅은 7개 덩어리이다. 그는 이 땅들을 짜빈(Trà Vinh) 성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사구 지대(Coastal Dune Belt), 속짱(Sóc Trăng)과 박리에우(Bạc Liêu)를 포함하는 해안의 강변 사구 복합 지대(Coastal River-Dune Complex), 칸터(Cần Thơ)와 허우장(Hậu Giang), 빈롱(Vĩnh Long)과 짜빈 일부를 아우르는 담수하(Fresh Rivers) 지대, 까마우(Cà Mau)를 중심으로 하는 염수하(Saltwater Rivers) 지대, 찌우독(Châu Đốc) 주변의 범람하는 산지군(Flooded Mountains), 삼만에 면한 서북부의 산지군(Oceanside Mountains) 등 메콩 전강의 서부 지역에서 여섯 개, 사이공 북부의 띠이닌(Tây Ninh)과 빈프억(Bình Phước)을 잇는 ‘붉은 땅’ 지대 한 개로 나누었다. 그는 이 붉은 땅을 북동 고원 지대(The Northeast

Uplands)라고 부르는데, ‘북동’의 기준은 책에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평자가 저자와의 대화를(2012년, 8월, 프놈펜) 회고하여 추측하건대 짜빈이다.

이상과 같은 구성은 책의 부제에 들어 있는 자연 환경(environment)의 차이에 기초한 것으로서, 캄보디아 크롬, 혹은 남부 베트남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사정없이 흔든다. ‘남부 베트남’, 그것은 자주 ‘메콩 델타’로 치환될 수 있었던 말이었다. 거기에 사이공이 추가되고, 동나이 강을 따라 만들어진 비엔호아 및 띠이닌 정도가 슬그머니 걸다리로 끼어들곤 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캄보디아 크롬을 독립된 세계로 상정한 후 그 땅을 분할하고 있다. 하나의 델타 대신 바다, 강, 고원, 산을 끼고 있는 서로 다른 지역이 이 책 속에서 나타난다. 부분으로서의 델타 (베트남 남부, 혹은 하부 캄보디아)가 지방의 이미지라면 바다, 강, 고원, 산 등의 제 지형으로 구성되는 한 영토는 독립된 영역이다. 영토의 분할을 통해 주권의 전체가 견고해진다.

그런데 그의 구성을 이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테일러의 학문적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진다. 인류학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머리말에서 저자는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나는 거주민들이 크메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내 400개 이상의 마을을 방문했다.”고 했다. 14년이 넘어가는 연구 기간은 수궁할 만 하지만 마을 숫자가 너무 많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7개 지역 중] 6개월까지도 소비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14년이나 400개리는 숫자에서 저자의 에너지를 느꼈다가도 캄보디아 크롬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7개 지역이 연구 대상이라는 데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에너지와 부지런함이 부산함으로 꺾어질 위험이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학문 방법론에 근거한 비판적 시각보다

저자에게 경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는 이 책이 “남부 베트남의 크메르 거주 지역들과 몇 번은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17회의 민족지적 현지조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캔버라에 거주하는 저자는 이 연구를 위해 14년 동안 17번 베트남, 캄보디아 행 비행기를 탔고 400여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는 베트남어에 더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캄보디아어까지 구사한다. 하나의 촌락이나 지역을 오랜 기간 관찰하는 일도 인류학자만이 해낼 수 있겠으나, 캄보디아 크롬 내 7개의 지역 400개 이상의 마을 조사도 인류학 아니고는 해낼 수 있는 학문 분야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 같은 역사학자로서는 시도해 볼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해보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의 목표 즉 주변을 중앙으로 바꾸는 작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의 방법은 유효하며, 용기 있는 시도로 치하되어야 한다. 이 학자는 책 전체를 전부 처녀문(處女文)으로 구성했다.

테일러의 ‘자연 환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용수 획득의 문제이다. 캄보디아 크롬은 푸난과 그 뒤를 잇는 수진랍(水眞臘)의 근거지로서 물과 델타가 어우러진 곳이다. 수도작이 발달한 만큼 물이 많지만 해안에 가까운 델타 하부는 바닷물의 영향으로 마실 물이 적은 곳이기도 하다. 우기에는 강우에 의존한다지만 건기에 물 부족은 심각하다. 저자는 물의 부족이 크메르인의 생활 양식, 종교,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베트남인의 메콩 델타 진출을 이야기하는 학자, 특히 역사학자들이 델타의 높은 생산성과 풍요로운 자연이 주는 혜택을 거주와 발전의 전제로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다. 풍요를 통한 인식이 아니라 결핍을 통한 이해법인 것이다. 그의 박사 논문<sup>1)</sup>과 그 논문을 기초로 한 첫 저서<sup>2)</sup>,

1) “Vietnamese Modern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8.

2) *Fragments of the Presents, Searching for Modernity in Vietnam's*

그의 두 번째 책<sup>3)</sup>에서의 전제는 풍요로운 메콩 델타가 낳은 ‘밀원(蜜園)의 문명(văn minh miệt vườn)’이었던 데 비해 이번 연구 대상지는 염수(鹽水)와 산성화된 물에 오염되고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척박한 땅에서 심각한 물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살아온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크메르인의 생활 방식 중 테일러가 찾아낸 가장 독특한 면모는 모래 언덕 즉 사구(砂丘)라고 번역될 수 있는 프노(phno, 영어로는 dune)이다. 메콩 델타의 크메르인 거주지를 논할 때 베트남어의 고(gò)라든가 종(giòng)으로 번역되는 구릉지에 그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왔다. 그런데 테일러는 이 구릉지가 델타에서 나타나는 단독적인 융기부가 아닌 긴 나뭇가지 모양의 연속적 고지대라는 사실을 위성사진까지<sup>4)</sup> 동원해서 발견했다. 짜빈 성, 짜꾸(Trà Cú) 현, 바잠(Bà Giam) 마을의 사구군은 저자의 표현을 빌자면 ‘깃털 모양(a feather shape)’(p. 34)이다. 프노 외에도 저자는 강이나 수로 양안에 집을 짓기 위해 크메르인이 흙을 쌓아 올려 가옥의 기반부를 높게 만든다는 것, 해안에 면한 산악 지대에서는 산의 구릉지(alluvial apron)에 거주지를 잡는다는 사실, 그리고 동북면 고원지대에서는 땅 위에 높이 솟은 주상가옥이 일반적 주거지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캄보디아 크롬은 ‘낮은 캄보디아(Lower Cambodia)’이지만 그곳의 크메르인은 하나같이 ‘높은’ 곳에 산다는 뒤집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노의 모양새를 굳이 새의 깃털에 비유하는 것도 날개가 갖는 높음과 비상(飛翔)의 이미지를 염두에 둔 탓이라고 생각된다.

*South*,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

3) *Goddess on the Rise, Pilgrimage and Popular Religion in Vietnam*,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4) 책에 나오는 모든 사진은 저자가 직접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그의 편집 작업을 통해서 탄생한 것 같다.

수많은 크메르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았을 법한 여러 전설은 두 번째 주제인 우주관을 떠받치는 요소들이다. 메콩 델타가 역사에 등장할 즈음의 형편과 관련해 우리는 푸난의 건국 과정을 알고 있다. 토지의 신인 나가가 있었고, 그의 딸인 소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었으며 인도 방면으로부터 온 브라만 카운딘야가 이 여성과 결혼해 푸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립 테일러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크메르인의 땅에는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의 시기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원래 바다였던 이곳에 솟아오른 땅은 향기롭고 반짝였다. 하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다. 땅의 흙은 달콤했다. 그것을 먹자 날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채 머물렀으니 이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란다(p. 1). 스리랑카로부터 시작되는 동쪽으로의 여행에서 바다를 건너던 부처가 밟은 징검다리 같은 땅인 이곳은 전설 속 황금의 땅 수반나부미의 한 축이라는 버전도 있다(p. 37). 이 땅의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뒤 성인에 의해 거기에 영혼이 불어넣어진 존재라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얘기도 있다(p. 150). 한 크메르 소녀가 강물 위의 흰 거품에 주문을 걸어 만든 인간이 베트남인이었다는(p. 151), 크메르 여성의 베트남인 창조설에 이르면 이 책의 제목인 ‘The Khmer Lands of Vietnam’은 ‘베트남에 있는 크메르 땅’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다는 생각까지 든다. 크메르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다.

자연 환경과 코스모로지를 주제로 하여 필립 테일러는 크메르인의 다양한 일상을 소묘한다. 이 소묘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양의 지식으로서만도 이 책은 크메르 문화에 대한 입문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는다. 이 책 표지 뒷면에 실린 데이비드 챌들러의 평대로 이것은 ‘지속적이고 동정어린 관심을 갖고 크메르 사람들에 대해서 쓴 최초 [모든 언어를 통틀어]의 책’이라 할 만하다. 사원의 기능, 거기

서 이루어지는 교육, 연못 파기, 식수 공급, 건축, 음식, 교통, 농사, 고기잡이,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받는 새우 양식, 목축, 교역, 민속 신앙, 은둔 수련자와 그들의 주술, 가족 관계, 토지 소유 문제, 이주와 전쟁, 약초 및 벌꿀 등 산림 자원 채취, 보트 경주, 우마차 시합, 역사, 전쟁, 이주민, 그리고 현재의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이 책의 여러 주제와 관련되어 소개된다. 예를 들어 보트 경주는 메콩의 수위가 가장 높고 날씨가 청명할 때 이루어지는 친수적 축제이며 크메르 세계의 기본 촌락 단위인 ‘뎀’과 ‘숙’ 중 뎀은 가족 단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는 (내 공부가 부족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는 꺾은 새우가 찐물에 근접한 크메르인의 눈을 뭉개고 들어선 양식장에서 재배된다는 사실은 메콩의 찐물 지대가 또 하나의 밀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필립 테일러는 이 모든 일상을 끌고 ‘주권’의 문제로 다가간다. 기존의 저술에서 패자를 승자로 만들어 내는 솜씨를 보인 적이 있었던 그에게 내가 거는 기대는 컸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베트남 남부의 ‘낙후’를 ‘모던’으로 바꾸지 않았던가? 그가 1998년에 정리하고 예견한 모던인들은 지금 남부를 기반으로 하여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저자가 넘어가고자 하는 두 선입견은 동화와 남진이다. 모던화 과정 속에서의 경쟁력에서, 즉 국내외 자금 동원망, 현대적 화학 물질의 사용과 적응에서 뒤떨어지는 크메르인은 현대화된 경쟁의 장에서 희생자이고 패배자였다.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그러하였고 지구화된 농업 생산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버리고 간 자리는 베트남인이 차지했다. 농토와 집뿐만 아니라 사원까지도 베트남인이 차지했음을 (신도로서 혹은 거주자로서) 테일러는 가감 없이 그린다. 오늘날 크메르 사원은 교육과 수련의 기능을 상실하고 극성스러운

베트남인과 중국인의 공간이 되고 있다. 크메르 어린이들은 사원을 찾지 않고, 모국어를 잊어 가는 크메르 젊은이들은 새로 습득한 베트남어와 영어를 무기로 대도시로 진출하면서 베트남 국민이 되어 가고 있다. 동화, 그것도 자발적 동화의 전형인 것이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크메르인의 정체성 손상, 토지 상실, 남부 베트남의 베트남화 과정이다. 남부 베트남에서 19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소수민족 동화 정책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왔던 나로서는 필립 테일러의 기술 중 이 부분을 지날 때, 현재에 되살아나는 과거를 확인하면서 역사학의 효율성에 대해 스스로 찬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테일러는 내 쾌재를 차갑게 배신한다. 그는 베트남인에게 땅을 빼앗긴 크메르인이 어떻게 고토(故土)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고토는 300년 전까지 자신들의 왕이 있던 숲속의 도시 (또는 수도) ‘Prei Nokor’<sup>5)</sup> 즉 사이공 및 그 주변이다. 이곳은 테일러가 제시한 7개 지역 중 ‘북동부 고원 지대’에 해당한다.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크메르인이 이 땅에 몰리고 있으며 사원이 건설되고 그 사원을 크메르 승려들이 채우고 있다. 사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는 크메르 청년들이 그득하다. 특히 짜빈과 속짱 출신의 크메르인이 메트로폴리탄인 사이공 및 그 주변으로 퍼져

5) 저자는 이를 ‘숲속의 수도(The forest capital)’라고 번역했다. 그의 고유한 번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을 그냥 사용한 것 같다. ‘Saigon’의 ‘Prey Nokor’ 기원설은 프랑스 식민 지배 초기에 활동했던 저명한 베트남 언어 학자 쩡영빈끼 (Truong Vinh Ky)가 제시한 데서 시작되었다. ‘프레이(preiy)’는 ‘숲 또는 산야 (forest)’, ‘노코르(nokor)’는 ‘도시’이니 Prey Nokor는 ‘숲의 도시’라는 것이다. Trần Văn Giàu et. al., *Địa Chỉ Văn Hó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호찌민시 문화 지리지) vol. one. Nxb. TPHCM, Ho Chi Minh City, 1987, pp. 223-224. 그런데 크메르에서는 꾸미는 말이 뒤로 간다는 원칙을 상기한다면 Prey Nokor는 ‘숲속의 도시’ 또는 ‘숲속의 수도’가 아니라 ‘도시의 숲’이 맞다. 프놈펜 근처 우동이나 로백 등 17세기 캄보디아 정국왕(正國王)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국왕(二國王)이 있는 이곳은 ‘대도회가 있는 숲 또는 변방’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나가고 있는 중임을 테일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역을 확대하는 중인 것이다. 동화는 어떤가? 테일러는 크메르인이 베트남화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인이 크메르인을 닮아가는 모습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사례의 양은 충분해 보이지 않지만 동화를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목격하다. 대승불교를 신봉하던 베트남인이 크메르 소승불교를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원의 신도 및 중간층 자리를 채우고 있다. 심지어 주지도 있다. 이 베트남인들은 대승불교보다 소승불교 속에 더 순수한 불교의 원형이 있다고 여긴다. 까오다이 교는 베트남인의 종교로서 ‘북동 고원 지대’인 띠이닌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띠이닌은 원래 크메르인 지역이었으니 이 종교는 제설 복잡적이고 다민족 공존적 성격을 띠면서도 크메르인 지대를 베트남화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해 온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데 까오다이를 받아들인 크메르인은 이 종교를 자기화하고 있음이 테일러에 의해서 발견된다. “[크메르인의 까오다이 사원에서는] 크메르어를 제례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 글자는 사원 입구에서 제거되고 크메르의 심볼인 나가로 [입구가] 장식되었으며 [...]”(p. 233), 프레이 노코르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메콩 델타의 크메르인은 “고대 숲속의 수도에 항구적인 기지를 다시 건설하고 있다”(p. 251)고 결론짓는다. 이 시점에서 동화와 남진 패러다임은 완전히 부정된다.

동화와 남진이라는 베트남인의 거대한 물결에 맞선 싸움이 워낙 험겨워서이겠지만 테일러의 논지 전개는 불가피하게 허술해 보이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남부 베트남에서 늘어나고 확산되는 민족은 크메르인만이 아니다. 참족도 그러하고 특히 중국인의 확산은 빠르다. 이런 현상은 남진의 역행이 아니라 19세기 중반 남진이 완료되고 동화 정책이 중단된 후 (19세기 중반과 20세기 후반) 나타나는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도 소개하는 바이지만 크메르 사원에 베트남인 신도가 많아지고 베트남어가 사원 안의 의례 언어로 통용되는 현상은 누가 뭐래도 베트남화 현상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민족 사회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텐데 일부 사례만을 짚어서 크메르화의 추세로 몰고 가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일곱 개 지역 중 한 곳,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인터뷰 대상자의 기억과 구술이 제공하는 특별한 내용, 즉 창조 신화라든가 크메르 여성의 베트남인 창조설 같은 것을 일반화하는 작업은 비록 조심스러운 기술을 구사하기는 하지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류학자가 역사를 쓰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불거지는 허술함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분량은 이 책의 가치를 폄하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필립 테일러는 캄보디아 크롬 크메르 공동체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남부상 (베트남사의 측면에서 볼 때)을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베트남인의 남진, 내지는 동화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도대체 그 어느 누가 크메르인의 약진을 학술적으로 논구할 엄두를 내거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대부분은 구술과 관찰, 그리고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문자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는 머리말에서 말고는 좀처럼 활용되지 않는다. 그는 긴 시간과 바꿔 한 원본(原本)을 생산한 것이다. 이 책은 크메르 공동체 연구 및 남부 베트남 연구의 발전 여정에 중요한 징검다리요, 남부 베트남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로 자리 매김 될 것임이 분명하다.